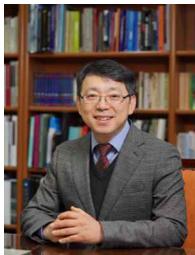


사람을 다시 보다, 세상을 연결하다, 내일을 준비하다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 담당 김혁중 Tel 055-320-6833 gogokim@korea.kr
	■ 2022. 1. 5. 배포 ■ 총 1매
보도자료	누구나, 어디서나 모두를 위한 박물관 MUSEUM FOR YOU

신임 국립김해박물관장에 이정근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2022년 1월 1일자로 국립김해박물관장에 이정근(48세)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임명했다.

신임 이정근 관장은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고고학자이다. 2,000년 입사하여 국립박물관에서 22년을 근무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관,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등을 거친 박물관 전문가이다.

특히 이 관장은 가야토기 전문가로 아라가야 토기 생산 유적인 함안 우거리 가마터 조사, 토기 제작 복원 실험 등 다양한 토기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가야사를 일반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립김해박물관이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가야문화의 복원’ 사업을 학계와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이 관장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핵심인 ‘가야학술제전’으로 신진 연구자 육성과 가야문화 복원사업을 심화하는 한편, 인근 공·사립·대학박물관과 함께 ‘가야문화권박물관협의회’를 결성하고 공동 전시 개최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모색하여 가야 문화의 저변 확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말을 탄 가야” (2020년), “가야인, 바다에 살다” (2021년) 등 여러 전시로 가야 관련 최신의 연구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알리는 일에 힘써 오고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 담당자 김혁중(055-320-68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